



2024 Januar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하나은행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2월 동향

12월 FOMC에서 내년 중 7bp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하며 상당히 비둘기 기조를 보인 영향 속에 한은 또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락 속 3.15% 수준으로 마감

연준 의장의 도비시 발언과 미국 민간 고용 부진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출발

- 월초, 파월 의장 발언(스펠만 대학)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며 내년 초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등으로 하락 출발. 여기에 미국 민간 고용지표 부진 등도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BO의 정책변화 기대에 따른 영향이 금리 하락을 다소 제한한 형국
 - 월 초, 파월 의장 조지아주 스펠만 대학에서의 발언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면서 '24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등으로 미 국채 금리 하락 반영 속에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 이어 미국 민간 고용지표 시장 예상 하회로 따른 경기 우려감이 반영되었으나, BO에 대한 정책 변화 기대 영향이 국내외 금리 하락을 다소 제한한 형국

미 11월 CPI 3.1%로 둔화세 이어진 가운데 12월 FOMC의 시장 예상보다 강한 비둘기 스탠스 등을 반영하며 큰 폭 하락세 시현

- 중반, 미 민간 고용과 달리 실업률 하락과 고용 호조 등이 나타났지만, 11월 CPI가 3.1%의 감소세 나타냄에 따른 긴축 완화 기대로 하락세 이어진 가운데, 12월 FOMC 회의의 '24년 금리 인하 가능성 제시 등에 따른 도비시 영향 반영 등으로 국내외 금리 급락세 시현
 - 중반 들어, 미 고용 및 실업지표가 민간 고용과 달리 호조 국면을 보였으나, 11월 CPI가 3.1%의 감소를 보이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 부각 등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 속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추세 지속
 - 또한 이어진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스탠스 전환 속에 '24년중 3회 인하 가능성 언급 등으로 국내외 국채금리 급락 양상 시현

국내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흐름 시사 속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미국 PCE 지표 추가 감소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3.15%까지 하락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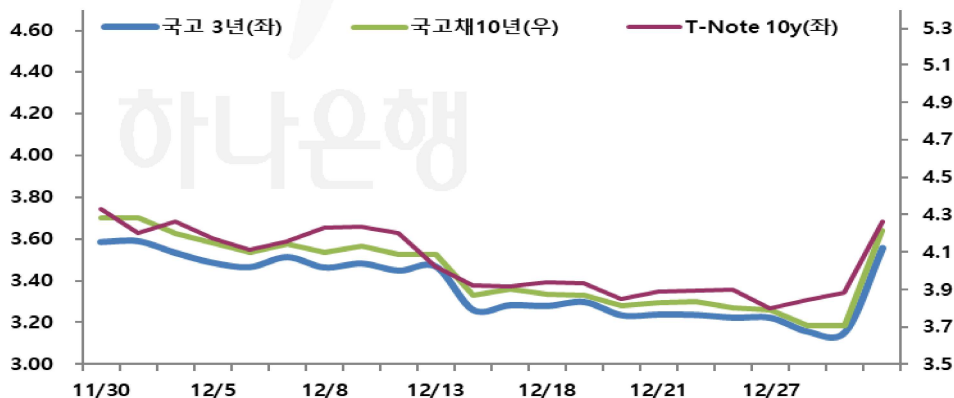
- 후반, 한은의 디스인플레이션 시사 언급 등이 하락 추세 유지에 영향 미친 가운데, 미국 11월 PCE 및 국내 기대인플레이션 3.2% 하락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3.15%로 한해 마감
 - 후반, 한은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시사 속에 글로벌 주요국 국채 강세 흐름에 연동되며 하락 흐름 지속
 - 이어 국내 PF 부실화 관련 태영건설 워크아웃 소식 등으로 크레딧물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11월 PCE가 유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하며 마감

12월 평균

국고채(3년): 3.36%

T-Note(10년): 4.0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 월
전망

연준의 '24년 중 피벗 제시 영향이 주요하게 국내외 금리 하락 동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기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인식 반영 등에 따라 일부 상승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25 ^(F)	3.15 ^(F)	3.10 ^(F)	3.00 ^(F)

12월 FOMC에서의 피벗 가능성 제시 등 연준의 비둘기적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금리 선반영 요인 등이 점진적 국내외 금리 하락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 국채 공급 규모 축소 완화 이슈 등이 수급적 금리 되돌림에 영향 미칠 요인인 가운데 글로벌 경기 점진적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과 상충 속 국고채 금리 향방에 영향 미칠 듯

1월 국고채(3Y) 금리는 3.10%~3.35% 예상

- 미국 물가 감소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전망과 현 금리의 경제에 대한 제약적 수준인 측면을 고려한 연준의 '24년 피벗 제시 영향이 국내외 금리 하락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주요 물가 지표가 연속적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4년중 연준의 피벗 가능성 제시 등이 미 국채금리 하락 동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방 압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과 그 시기 일부 위원들의 매파 성향 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연준 피벗 가능성에 따른 금리 급락 시현에도 연초 재정 시스템 관련 미국채 공급 규모 축소 이슈 등이 금리 되돌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는 측면은 시장 기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상기 이슈와 상충하며 국고채 금리 향방 결정할 전망
 - 미 재무부의 연초 장기 국채 공급 규모 축소 완화에 따른 공급 부담 요인이 수급상 국채금리 하단을 제약할 요인으로 판단
 - 반면, 중국과 유로존 수요 부진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지속은 시장 기저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상기 요인과 상충 속 국고채 금리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달리 여전히 물가 반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대내적 환경 속에서 국내 경제 여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금리 일부 되돌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흐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가들의 물가 감소 추세와 달리 대내적 물가 불확실성 속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경기 상황도 소비지표 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시 제한적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국고채 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한은이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을 제시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금리에 빠르게 선반영된 측면도 일부 국고채 금리 되돌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대내적 물가 불확실성 상존 · 연초 미 장기채 공급 규모 축소 완화 · 경제여건과 기준금리 대비 낮은 수준 시장금리의 일부 되돌림 가능성	· 12월 FOMC 금리 인하 피벗 시사 영향 · 한은의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시사에 따른 시장 금리인하 기대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2 월
동향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기대 견제 발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와 비둘기적 FOMC에 의해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 강화된 측면이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를 견인하며 환율은 1,280원대 마감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낙관론에 대한 연준 당국자들의 경계 발언 등을 반영하며 환율 상승 출발했으나 BOJ 통화정책 변경 기대에 달러 강세 제한되며 1,300원대 등락

- 월초, 연준 위원들의 시장 내 과도한 피벗 기대 경계 발언과 중국 경기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 등으로 상승 후 BOJ 출구전략 추진 기대 속 엔화 강세 반영하며 하락 전환
 - 월초, 연준 관계자의 제약적 긴축 수준 유지 필요성 언급에 의한 금리인하 기대 조정으로 달러 가치 반등한 측면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 영향 반영되며 환율은 1,300원대로 상승 출발
 - 이후 민간 고용지표 둔화로 인한 경기 냉각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 유입되며 1,320원대로 상승했으나 BOJ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 속 환율은 큰 폭 하락하며 1,300원대 중반 마감

미국 11월 CPI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둔화된 가운데 FOMC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에 1,290원대로 급락 후 BOJ의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반영하며 1,300원대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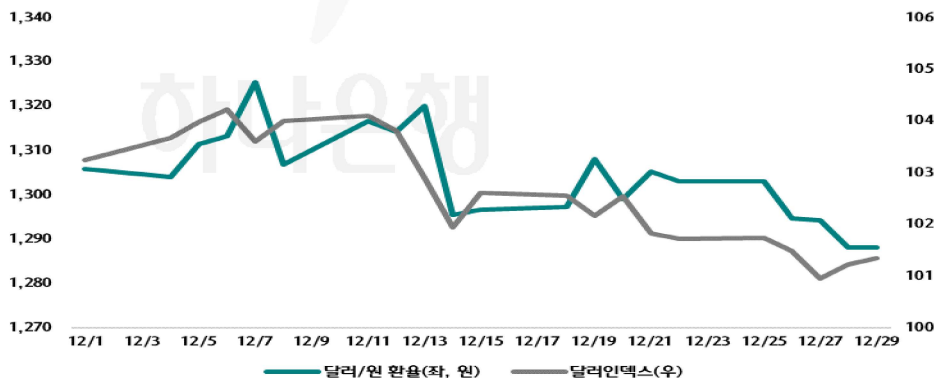
- 월 중반,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평가된 FOMC 결과 소화하며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속 1,290원대로 급락했으나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되돌림
 - 중반,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지수에 Fed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약화된 가운데 미국 11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음에도 FOMC 경계감에 하단 지지되며 1,310원대 등락 흐름 시현
 - FOMC 점도표 하향조정과 연준 의장의 비둘기 발언에 조기 피벗 기대감 강화되며 1,290원대로 급락했으나 지역 연은 총재의 경계성 발언과 BOJ 정책 유지 결정에 따른 엔화 약세에 1,300원대 재진입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한 달러 약세 기조와 리스크온 분위기 속 미국 PCE 물가 둔화와 수급상 연말 달러 매도 압력 지속 등으로 환율 하락세 이어지며 1,280원대 마감

- 후반, FOMC 이후 달러 약세 모멘텀 강화된 가운데 물가 둔화세 지속과 위험선호 심리 회복, 수급상 연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 강화 영향 등이 더해지며 환율은 1,280원대로 하락 마감
 - 후반,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기반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와 전반적인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 유입에 1,300원선 중심으로 등락하며 지지력 유지되는 모습
 - 이후, 미국 11월 PCE 물가 둔화와 양호한 미 국채 입찰 결과에 따른 미 국채수익률 하락 등에 달러 약세 심화된 가운데 수급상 연말 수출업체 달러 매도매도 물량 출회 등으로 1,288.0원으로 하락 마감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05.1
12월말 달러/원 환율
: 1,288.0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1 월
전망

연내 피벗 전환 가능성에 따른 연준 영향이 크게 반영될 전망 속 국내 수급의 긍정적 영향 등이 원화강세 견인할 전망. 하지만 주요 통화 약세와 일부 매파 연준 위원들의 언급 등이 하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00 ^(F)	1,280 ^(F)	1,240 ^(F)	1,270 ^(F)

전년 마지막 FOMC의 비둘기적 영향 파급 효과가 다소 단기적으로 달러인덱스 하락에 영향 미치겠으나, 이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의 경계감 강화 등이 원화 강세 제한할 듯

유로존과 중국 경기 부진 부각에 따라 ECB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중국 위안화 약세 등의 영향 반영이 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월 달러/원 환율
1,290원 ~1,315원 예상

■ 연준의 '23년 마지막 FOMC에서의 완전한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 시사에 대한 영향이 달러인덱스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주요 물가 지표의 둔화 기조가 이어지는 점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통한 달러 약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23년 12월 FOMC에서 피벗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이 '24년 초반 달러 인덱스 하락 영향에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시장의 낙관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통화정책 당국과의 괴리가 크다는 측면은 금융시장 왜곡 등을 경계하는 일부 연준 위원의 매파 성향 강화를 통해 환율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과 중국경기 부진이 연초부터 부각된 가운데 ECB의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진 측면과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회복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기대 속 위안화 약세에 원화가 동조화 할 가능성 증대 등은 대외 달러 약세 기조의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서비스 PMI가 4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하는 등 미국경제 연착륙 분위기와 차별화 양상 보이는 가운데 ECB 긴축 종료 기대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달러가치 지지력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중국 성장 회복세 또한 미약한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도 회복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 파급 등으로 통화 약세 흐름만 강해질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원화 동조화 흐름 등이 미국 경제와 연준 정책 관련 원화 강세 우위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난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수급 불안정성이 완화된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피벗 요인에도 한은 속도는 다소 더딜 수 있다는 점 등이 대내적 원화 강세 지지할 전망

- 대내적으로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 양상을 이어가는 수출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 완화 기대 등이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
- 하지만 연준 통화정책을 반영한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증대 요인이 외자 흐름에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나, 한은이 연준보다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이 대내금리차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원화 환율 하락에 영향을 보다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유로존과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통화 약세의 간접적 영향	- 직전 FOMC의 연준 금리인하 피벗 제시 - 대내적 수급 요인의 불안정성 다소 완화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3.8
12월 엔/원 평균환율
: 906.9

1월 엔/원 예상범위
: 905~915원

대내외적 연준 '24년 금리 인하 피벗 기조 반영과 시장 기대와 불일치하는 BOJ 정책 변화 가능성 지연 요인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연준 영향을 크게 반영하는 원화 강세 속 소폭 하락 예상

- (엔화 동향) 미국 고용지표 둔화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지속되는 가운데 우에다 BOJ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관련 발언 등에 엔화 강세로 출발.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급락과 달러 약세 반영하며 엔화 가치 반등세 이어졌으나 12월 BOJ 금정위에서의 완화적 스탠스 유지 결정과 긴축 시그널 부재에 약세 전환. 후반, 그럼에도 시장 내 BOI 긴축 전환 기대 지속되는 측면이 엔화 강세 견인하며 140엔대에서 마감
- (엔/원 전망) 12월 FOMC의 3회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등이 과도할 수 있다는 경계감에도 빠른 경우 3월 인하 기대 등이 반영되는 측면이 달러인덱스 하락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BOI의 더딘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엔화 자체의 약세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달러/엔 환율의 소폭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엔/원 환율은 대외적 연준 기조의 상대적 원화 강세 영향 우위 전망에 따라 910원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임
- 대외적 연준의 비둘기적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등이 달러 가치 약세를 통한 엔화 강세 지지 요인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 그럼에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BOI의 더딘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141~143엔 사이 등락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엔/원 환율은 최근 대내외적 원화의 상대적 강세 요인을 반영 910원 소폭 하회 흐름 보일 전망

유로/원 전망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918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23.8

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00~1,435원

연준 금리인하 스탠스에 따른 달러 약세는 유로 강세 지지하는 주요 요인이거나, 현재 유로존 물가와 경제 상황이 ECB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통해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하게 하는 측면이 상대적 유로 약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유로화 동향) 유로존 물가 둔화세와 3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에 ECB의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 대두되며 유로화 약세 출발. 중반, 12월 FOMC에서 완화적 스탠스 보인 연준과 예상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표명한 ECB 간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 후반,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지속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영향 등으로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1.10달러선 상회하며 마감
- 연준의 '24년중 금리인하 시사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이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그러나, 최근 유로존 물가 감소세 이어지며 ECB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에 따라 연준보다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유로 약세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지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에서 미국 경제 연착륙과 차별화되는 측면도 약세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연준의 연내 3회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에 따른 달러 약세가 유로 강세 요인으로 판단되나, 최근 유로존 내 물가 감소 속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상존하는 측면이 다소 크게 약세 지지할 전망
- 유로/원은 연준 비둘기 기조가 원화 강세를 상대적으로 크게 지지할 전망 속 1,400원대 흐름 등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휴정]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미국(산정) 한 12월 수출/입(YoY +7.8%, -11.6%) 무역수지 미 11월 제조업수주(MoM -3.6%) 내구재 주문[P]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실업률(3.7%), 경제활동 참가율(62.8%)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199K) 실업 개인소비 ISM 서비스(52.7) 유 11월 PMI(MoM +0.2% YoY -9.4%) 12월 CPI(YoY +2.4%), CPI 근원[P] 일 12월 지분 은행 서비스, 종합 PMI[F] 소비자기대지수(36.1)	2 24년 첫 거래일 [휴정] 일본(산정) 2024년 첫 주식 거래일 + 10시 개장. 장 종료 시각은 연행과 동일 한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0) 미 11월 건설지출(MoM +0.6%)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중 12월 Cixin 제조업 PMI(50.7) 유 12월 HCOB 제조업 PMI[F]	3 [휴정] 일본(뱅크홀리데이) 12월 FOMC 의사록 공개 미 11월 구반이직보고서 구인건수 12월 ISM 신규주문(46.7), 고용(45.8) ISM 구매물가(49.9), 제조업(46.7) 한 11월 도매무역 판매(MoM -1.3%) 도매무역 재고[F] 일 11월 실질 임금총액(YoY -2.3%) 화 11월 CPI(YoY, 4.9%)	4 한 12월 외환보유액 미 12월 Challenger Job Cuts(YoY -40.8%) ADP 취업자 변동(103K)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중 12월 Cixin 서비스업, 종합 PMI 유 12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일 12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독 12월 (잠정) CPI (전월비, 예0.2%/아-0.4%) (전년비, 예3.8%/아3.2%)	5 미국 고용보고서 미 11월 제조업수주(MoM -3.6%) 내구재 주문[P]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실업률(3.7%), 경제활동 참가율(62.8%)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199K) 실업 개인소비 ISM 서비스(52.7) 유 11월 PMI(MoM +0.2% YoY -9.4%) 12월 CPI(YoY +2.4%), CPI 근원[P] 일 12월 지분 은행 서비스, 종합 PMI[F] 소비자기대지수(36.1)	6
7	8 [휴정] 일본(영년의 날) 미 11월 소비자신용지수 중 12월 수출/입(YoY +0.5%, -0.6%) 유 11월 소매판매(MoM +0.1%, YoY -1.2%) 실업률(4.5%) 12월 경기, 산업, 소비자기대지수	9 CES 2024(~12) 한 11월 국제수지 미 12월 KPMG 스기업 낙관지수(90.6) 중 12월 통화자금 M2(YoY +10.0%) 일 11월 가계 소비지출(YoY -2.5%) 12월 도쿄 CPI(YoY +2.6%) 12월 CPI 근원(YoY +2.3%)	10 지존일 미 11월 도매무역 판매(MoM -1.3%) 도매무역 재고[F] 일 11월 실질 임금총액(YoY -2.3%) 화 11월 CPI(YoY, 4.9%)	11 옵션만기일, 한국금통위 한국 옵션만기일 +24년 첫 옵션만기일, 매일 두번째 목요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24년 첫 금통위, 지난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연 3.5%로 7연속 동결 결정 한 1월 1~10월 수출/입(YoY +3.3%, -15.3%) 미 12월 CPI(MoM +0.1%, YoY +3.1%) CPI 근원(MoM +0.3%, YoY +4.0%)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8%)	12 미 12월 PPI(MoM +0.0%, YoY +0.9%) PPI 근원(MoM +0.1%, YoY +2.5%) 일 12월 경상수지, 무역수지, 은행대출 경기관찰조사 연행, 전망(49.5, 49.4) 화 11월 주택대출액(MoM, 5.4%) 영 11월 평균임상(MoM, +0.8%/YoY, 0.4%) 제조업생산전월비(-1.1%) (전년비(0.8%))	13 중 4Q GDP 12월 CPI(YoY -0.5%), PPI(YoY 3.0%) 경기관찰조사(YoY +6.6%) 소매판매(YoY +10.1%)
14 우크라이나평화회의	15 세계경제포럼(~19) [휴정] 미국(마틴루터킹데이) 세계경제포럼(WEF)(~19) 한 12월 수출총액(MoM -3.2%, YoY -7.2%) 수입총액(MoM -4.1%, YoY -8.5%) 유 11월 산업생산(MoM -0.7%), YoY -6.6%) 일 12월 통화량 M2(YoY +2.3%)	16 한 12월 실업률(2.8%) 수입 줄기(MoM -4.1%, YoY -8.5%) 수출 줄기(MoM -3.2%, YoY -7.2%) 미 1월 뉴욕 제조업지수(-14.5) 중 12월 실업률(5.0%) 유 11월 ECB 1년, 3년 CPI 기대 일 12월 PPI(MoM +0.2%, YoY +0.3%)	17 한 11월 통화자금 M2(MoM +0.3%) 미 11월 기업재고 12월 소매판매(MoM +0.3%), 근원 소매판매 실비가동률(78.8%), 경공업 생산 수입 줄기(MoM -0.4%, YoY -1.4%) 수출 줄기(MoM -0.9%, YoY -5.2%) 1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4.6) NABER 주당시정지수(37)	18 미 12월 주택차감관수(MoM +14.8%) 건축여가(MoM -2.5%) 신규주택판매 유 11월 ECB 정상수지 건설 생산(MoM -1.0%, YoY -0.7%) 일 11월 핵심가계수주, 설비가동률 경기관찰조사(MoM +0.7%, YoY -2.2%)	19 미국 옵션만기일 + 24년 첫 옵션만기일, 매일 세번째 금요일 미 12월 기존주택매매(MoM +0.8%) 1월 미시간대 경기전행, 소비자기대[P] 미시간대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11월 3차산업지수 12월 전국 CPI, CPI 근원 영 12월 소매판매(자동차연료포함, MoM, 1.3%)	20
21	22 [BOJ 통화정책회의(~23)] (1)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 동결하고 YCC 정책 유지하며 금부 유화정책 유지 (2) BOJ는 대외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이라 는 평가. 24년 상반기 정책 변경 주목 한 4Q GDP(QuQ +0.6%, YoY +1.4%) 1월 1~20일 수출/입(YoY +13.0%, -9.2%) 미 12월 선행지수	23 한 12월 PPI(YoY +0.6%) 미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유 1월 소비자기대지수[P] 화 12월 NAB경기기대지수(-9)	24 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월 S&P 글로벌 제조업, 종합, 서비스업 PMI 유 1월 소비자기대지수[P]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12월 수출/입(YoY -0.2%, -11.9%) 1월 지분 은행 제조업, 서비스, 종합 PMI[P]	25 ECB 통화정책회의, 4Q GDP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2연속 동결, 수신금리 4.0%, 한계대출금리 4.75% 유지 (2) ECB는 금리 인하 압력 강해지고 고금리 장기화 기조 이어지는 등 미화전대세 유지 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 비제조업 미 4Q GDP 줄기지수, 개인소비 12월 내구재 주문, 근원 내구재 주문[P] 소매재고, 도매재고	26 일본 12월 BOJ 의사록 공개 미 1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PCE, PCE 근원 디플레이터 이달 주택매매 1월 연방주택지수 제조업, 서비스업 활동 유 12월 M3 통화량 일 1월 도쿄 CPI, CPI 근원 12월 PPI 서비스	27
28	29 미 1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30 미국FOMC(~31) [미국 FOMC(~31)] (1) 지난 회의에서 5.25~5.50%로 3회 연속 동 결 (2) 24년 경제성장률 1.4%, 점도표 중간값 4.6%으로 연준 24년 3차례 금리 인하 시사 미 11월 FOMC 회의기록지수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110.7)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4Q GDP(QuQ -0.1%, YoY +0.0%) 1월 경기 소비자, 산업, 서비스 기대지수	31 일본 1월 BOJ 요약본 공개 미 4Q 고용비율지수 1월 MNI 시가도 PMI ADP 취업자 변동 일 12월 소매판매, 항공업생산, 주택착공건수 화 4Q CPI (전분기대비, 1.2%) (전년비(3.4%))			

하나은행

장*정 / 0118208**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